

23.03.20(월)~23.03.24(금)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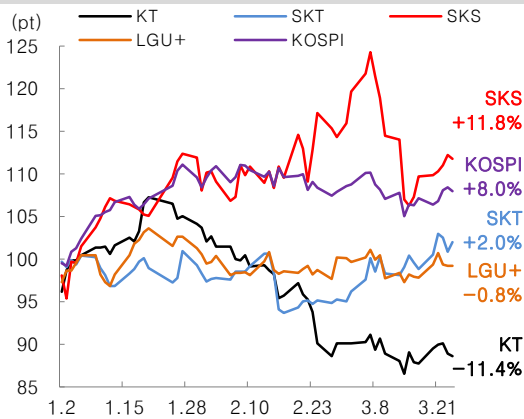
기업	22/12/29	03/17	03/24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23E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47,400	46,850	48,350	▲ 950	▲ 2.0%	▲ 1,500	▲ 3.2%	3,330	6.9	
SK스퀘어 (402340)	33,550	36,800	37,500	▲ 3,950	▲ 11.8%	▲ 700	▲ 1.9%			
KT (030200)	33,800	29,650	29,950	▼ 3,850	▼ 11.4%	▲ 300	▲ 1.0%	2,150	7.2	
LGU+ (032640)	11,050	10,810	10,960	▼ 90	▼ 0.8%	▲ 150	▲ 1.4%	700	6.4	
KOSPI	2,236.4	2,395.7	2,415.0	▲ 178.6	▲ 8.0%	▲ 19.3	▲ 0.8%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서서히 견혀 가는 구름**
- 통신업은 주간 +2.0% 상승, KOSPI +0.8% 상승. SKT가 5G 요금제 출시에 따른 리스크 해소로 +3.2% 상승. YTD로는 SK스퀘어 +11.8%로 상승률 1위
- 2주 연속 지수 대비 아웃퍼폼 후 지난 주 소폭 언더퍼폼, 이번 주 다시 아웃퍼폼. SKT의 예상보다 빠른 5G 중간 요금제 출시와 지수의 주 초반 2,400pt 하회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상승. 전반적으로 2월 중순 이후 약 한달 간 지속된 규제 리스크는 서서히 해소되어가는 중
- SKT의 5G 중간요금제는 예상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 정부의 당초 요구사항도 인위적인 요금인하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였기 때문에, 이에 부합한 요금제가 출시되었다고 판단. KT와 LGU+까지 요금제 출시하면 규제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
- 한편, 윤 후보의 사임 표명으로 KT의 CEO 선임은 난항. 만일 새로 선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최소 3개월 이상, 선임 후에도 전략 수립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서, 사실상 올해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초유의 사태 발생. 만일 통신이나 경영의 비전문가가 선임된다면, 내년까지도 경영 공백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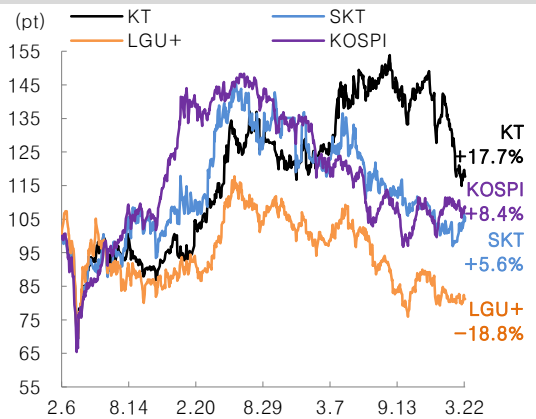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그림 1 23.1월 대비 주가 상승률, 규제리스크 부각되며 주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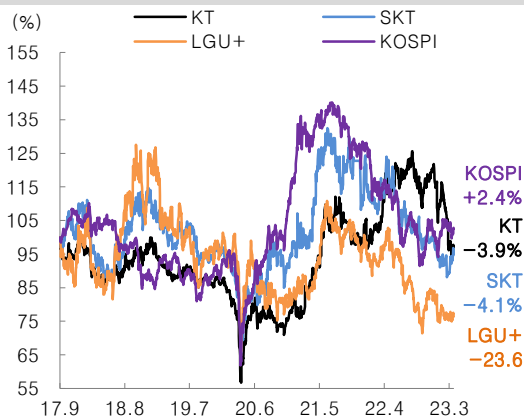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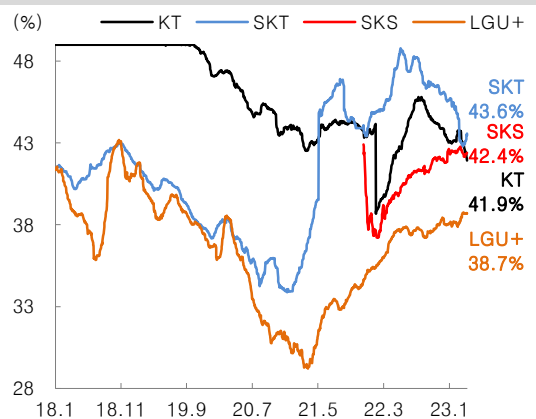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17.9월 선약할인률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상승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외인지분율, 규제 리스크로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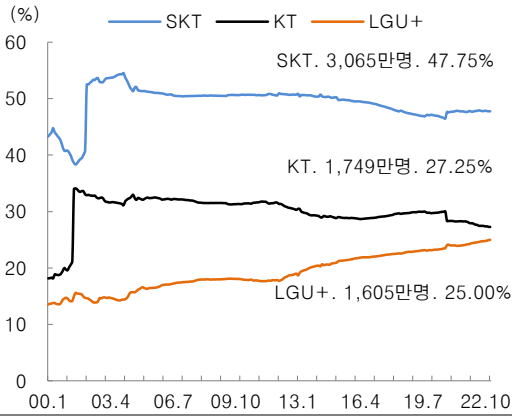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 주간 코멘트

과기부, KT SAT, LGU+ 로봇, 5G 중간요금제, KT CEO		
과기부장관 인터뷰	과기부장관 인터뷰	산업
	1. 과기부 장관, 이동통신 3사가 실질적 경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그 대신 정부는 6G 이통 등 선행기술 개발 분야에서 통신사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2.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관련, "통신사의 이익을 무리하게 나누자는 게 아니라 국민 이익과 통신사 이익 사이에서 최적의 선을 찾아 가는 과정" 3. 통신사를 독과점 체제 아래에서 이익만 취하는 '이권 카르텔'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권 일각의 기류와는 선을 그음 4. 통신 3사가 국민에게 기여한다면 지원 정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피력. 정부 차원에서 규제로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판을 키워서 통신사에도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 5. 제4 이통사 선정과 관련, "문호를 열어 놓고 다양한 기업과 접촉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 ■ 통신사에게는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요금제 개편을 주문하되, 정부도 6G 등 미래 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	무선 총립적
KT SAT-스페이스X	KT의 위성통신 계열사인 KT SAT이 스페이스X와의 협업 추진 중	기업
	1.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를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 준비 2. 스페이스X는 지난 1월 서울전파관리소에 국내 위성 인터넷 서비스 신청. 지난 3/8에는 서울에 스타링크코리아 법인 신설 3.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은 저고도(330~570km)에 위치해있고, 다운로드 속도는 50~250Mbps, 업로드는 10~20Mbps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4. KT SAT의 무궁화위성 등은 정지궤도 위성. 주로 군대, 선박, 해상플랫폼 등에서 사용 5. 정지궤도 위성은 안정적으로 통신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도가 3만5000km로 높아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느림 ■ 6G는 2030년경 상용화 예정이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6G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특히, KT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여서, 6G 시대에 위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유리한 고지 점령 ■ KT는 고궤도 정지위성, 스페이스C는 저궤도 정지위성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사간의 시너지도 창출 가능할 것으로 전망	KT 긍정적
LGU+ 로봇	LGU+, 3분기 중으로 다양한 서비스 로봇 출시 예정	기업
	1. 기존 '서빙 로봇' 외에도 물류·배송(실내외)·조리·안내 등 분야에서 기업용 서비스 로봇 라인업 확대 2. 22.9월 LGU+는 LG전자와 협력해 서빙 로봇 'LG 클로이(CLOI) 서브봇'을 연내 상품화한다고 밝힌 바 있음. 양사는 작년 8월 말부터 더본코리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흥공반점, 인생설렁탕, 롤링파스타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클로이 서브봇 시범 운영 3. LGU+는 이번 라인업 확충으로 신규 로봇 사업 레퍼런스를 대거 확보해 서비스 로봇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전략 4. LGU+는 기업 고객 컨설팅과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도 확충하고, 고객 케어 프로그램 개발에도 돌입 ■ 로봇 자체는 통신사의 사업과 직접 연계성이 떨어지지만, 로봇이 무선 N/W 기반 하에, 그리고 AI 기술이 접목된 산업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진출하기 좋은 신사업이라고 판단	LGU+ 긍정적
5G 중간요금제 확대	SKT 5G 중간요금제 확대 개편	기업
	1. SKT, 24GB 구간 이용자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데이터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24GB에서 110GB 사이 요금제 추가 2.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37GB, 54GB, 74GB, 99GB다. 요금은 각각 3,000원, 5,000원, 7,000원, 9,000원 3. 기존 5G 중간 요금제인 '베이직 플러스(24GB, 59,000원)' 이용자가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했을 경우 쿠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3,000원부터 9,000원까지 추가 금액을 지불해 데이터 충전 가능 4. 과기부는 데이터 구간 신설로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요금제 변경을 통해 월 최대 7,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5. 이번에 SKT가 선보인 요금제는 5G 중간 요금제 4종, 노인 이용자를 위한 요금제인 '5G 시니어 요금제' 3종, 만 34세 이하 청년 이용자 대상인 '5G 청년 요금제' 11종과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등 총 25종 6. 과기정통부 장관, "예전엔 요금제가 부족해서 국민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를 상대로 요금제 절감 효과를 안내하고, 통신사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요금제 출시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 ■ 신규 중간요금제 4종은 2천원 간격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데이터 증분도 20GB 수준으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의 하향 및 상향의 이동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 ■ 데이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금제의 세분화가 궁극적으로는 ARPU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SKT 총립적
KT CEO 후보 사의 표명	3/23 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 표명	기업
	1. 최근 글로벌 의결권 자문 기관인 글래스 루이스와 ISS는 윤 후보에 대해 찬성할 것을 권고했고,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 기관 역시 찬성 권고 2. 최근 시민단체는 윤 대표 후보와 구현모 현 대표가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 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사외이사들에게 부정적인 항응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 3. 지난해 말 구현모 현 대표가 이사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국민연금 반발을 고려해 경선 제한, 또 다시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됐음에도 여전히 반발에 연임 포기 4. 이후 공개 경선에서 최종 후보군이 윤 사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 4인들로 구성되자 여론은 "이권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 제기 ■ 만일 윤 후보가 사퇴한다면, 새로운 CEO 선임까지 또 다시 3개월 가량 소요되고, 새로운 CEO가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는 최고이사결정권자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 ■ 만일 새로운 CEO 후보가 통신 전문가도 아니고 경영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면, 경영 공백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KT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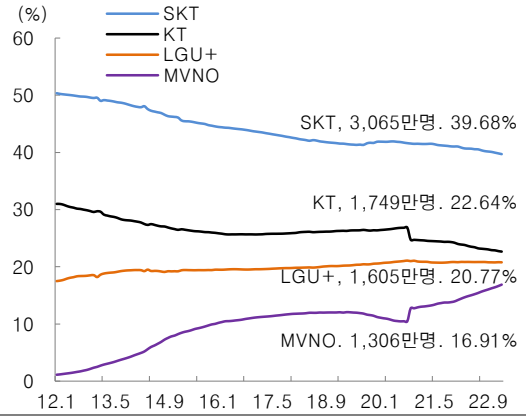
4. 주요 차트

그림 5 통신3사 무선 점유율(2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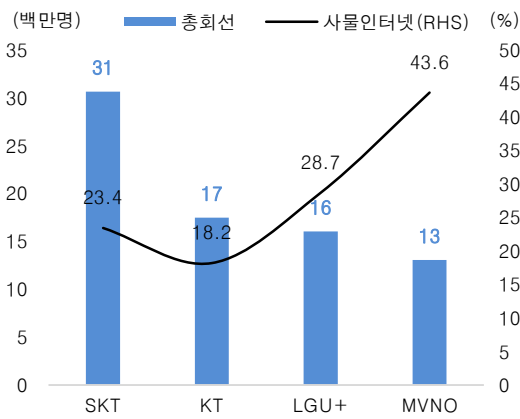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MVNO 포함 무선 점유율(2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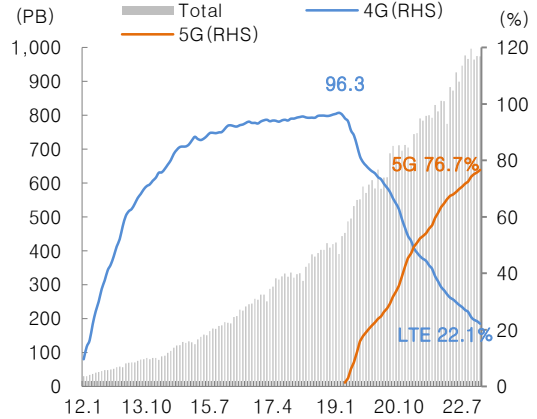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총화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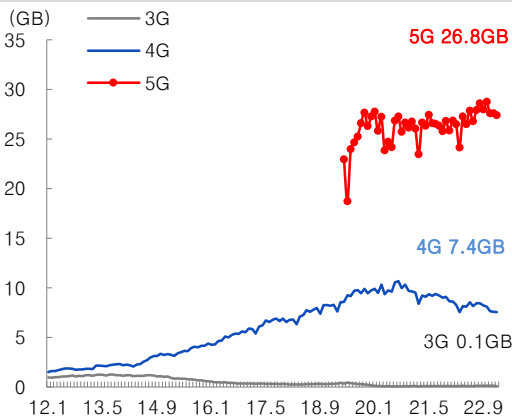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5G 트래픽 비중 76.7%(2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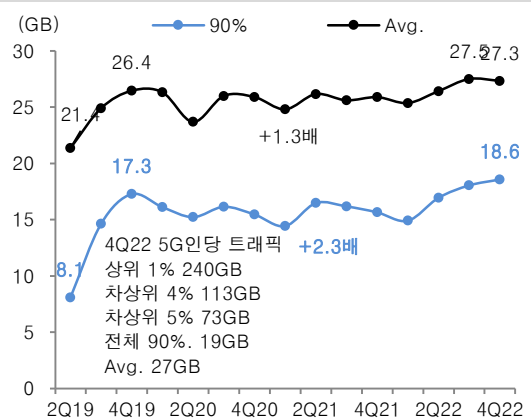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26.8GB(2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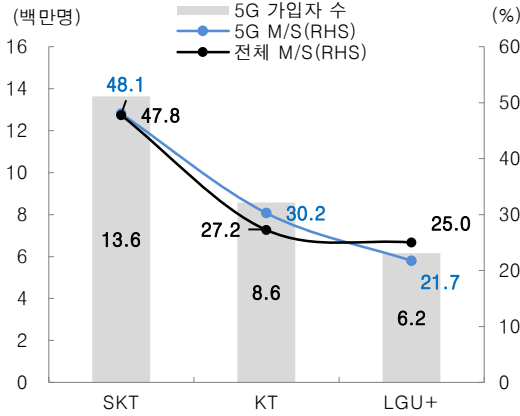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5G 트래픽 추이(4Q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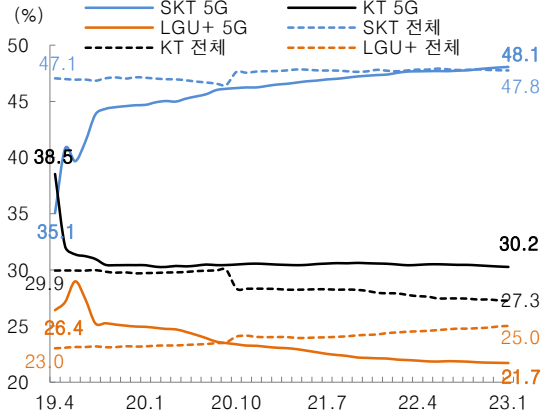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5G 점유율 vs. 무선 전체 점유율(2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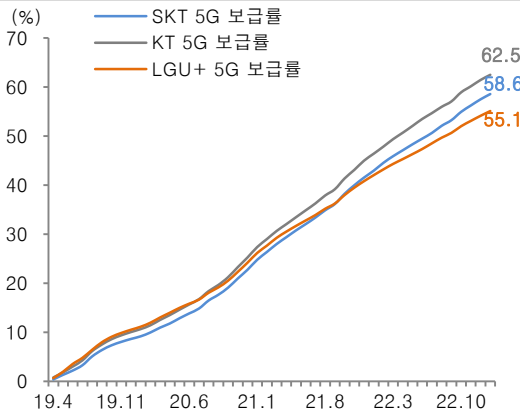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5G 점유율 vs. 무선 전체 점유율(23.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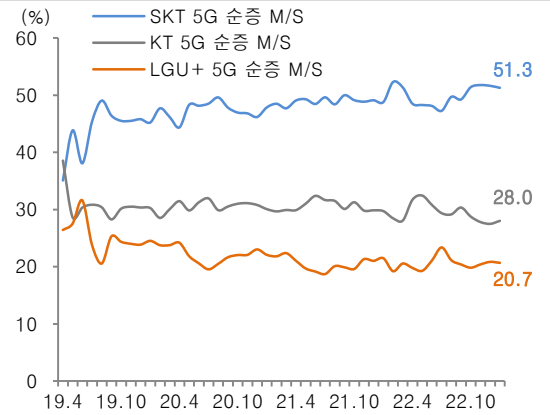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5G 보급률(23.1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5G 순증 점유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